

# 에콰도르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3

## 에콰도르

### I. 일반개황

면적	277천 Km <sup>2</sup>	GDP	547억 달러(2008년)
인구	13.8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3,961 달러(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S Dollar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

- 남미대륙 태평양 연안 북단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는 상업과 수출, 안데스 고지대는 소규모의 농업과 서비스업, 동부 아마존 밀림지대는 석유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민주주의 체제는 확립되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축출되는 등 정치 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 석유 및 농수산물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과거 수차례 디폴트 경험이 있었으며, 2008년 12월에도 양호한 대외지급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본드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지 못함.

## II. 경제 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f</sup>
경제성장률	6.0	3.9	2.5	6.5	-3.6
재정수지 / GDP	0.7	3.2	2.1	-0.5	-4.0
소비자물가상승률	2.1	3.3	2.3	8.3	5.5

자료 : IFS, EIU

#### □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에콰도르는 2000년 달러공용화 제도 도입과 IMF의 금융지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해 왔음.
- 2007년에는 정국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주요 유전에 대한 신규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5%까지 낮아졌으나, 2008년에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인프라 및 개발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원유수출 증가, 건설업 및 금융업 회복 등에 힘입어 6.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 2009년에는 디폴트 선언('08년 11월)에 따른 국제신인도 하락, 원유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재정 악화에 따른 경기부양책 효과 부진 등으로 인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 적자 폭 심화

- 달러공용화 정책 추진에 따른 이자 비용 감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 수입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세원 확대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음.

- 2006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내수호조와 고용증대에 따른 세원 확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폭이 GDP 대비 3.2%까지 확대되었으나, 2007년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現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 보건 등 사회복지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에 의해 재정수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되었음.
- 한편, 2008년에는 상반기까지 재정수입 증가세가 유지되고 외채원리금 조기 상환으로 인해 재정상황은 개선되었으나,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재정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반전하였음.
- 2009년에도 상반기까지 이어진 국제유가 하락 기조,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25% 이상 축소되고, 신헌법 개정을 대비한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선심성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GDP의 3.5%로 확대될 전망이다.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 : 23.8%('06)→27.3%('07)→39.0%('08)→34.1%('09)

#### □ 물가상승 압력은 크게 둔화

- 에콰도르는 달러공용화 정책 도입이전에는 물가상승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인플레이가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2000년 달러 공용화 제도를 도입한 이래 물가상승률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8년에는 국제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상반기중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8.3%를 기록하였지만, 2009년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성장세 둔화,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은 5%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 석유, 바나나, 새우에 대한 경제의존도 매우 높아 경제구조 취약

- 원유 수출이 총수출 및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커피, 새우 등 1차 산업에 지나치게 특화된 경제구조로 인해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 에콰도르산 석유 가격은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 원유가격의 80% 수준임.

### □ 달러 공용화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 상존

- 1999년에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0년 3월 달러공용화 제도를 도입함. 이후 경제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고,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과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급증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달러공용화 제도의 불가역성(irreversibility)으로 인해 사실상 영원히 통화주권을 상실하게 되었음.
- 달러공용화 제도는 중앙은행의 발권(發券)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국내 신용창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유동성 부족에 처한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며, 미국 달러화의 환율변동에 따라 에콰도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국가 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에콰도르에서 달러공용화제도는 외환위기 예방, 물가안정, 국내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증대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 외국 투자기업과의 분쟁 지속

- 에콰도르 정부와 미국 석유회사인 옥시덴탈(Occidental)<sup>1)</sup>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에콰도르 정부는 2000년에 옥시덴탈이 15광구의 지분 40%를

1)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옥시덴탈은 1990년대부터 에콰도르 아마존 유전 개발에 참여해 에콰도르 전체 산유량의 20%에 해당하는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를 채굴, 판매해온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임.

캐나다 석유회사인 EnCana에 임의로 양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고 결국 오랜 소송 끝에 이 같은 청원이 받아들여졌음.

- 한편, 2005년 9월에 EnCana는 동 광구의 지분을 중국계 컨소시엄인 Andes Petroleum Company에 14억 달러에 매각한 상태임
- 옥시덴탈은 에콰도르 정부에 2천만 달러의 위약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얻은 이익금 절반을 내놓겠다고 제안했으나 에콰도르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이 회사 자산을 압류함.
- 이로 인해 에콰도르와 미국과의 FTA 협상도 중단되었으며, 자원 국유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에콰도르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옥시덴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 석유산업 국유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옥시덴탈은 지난 2006년 8월,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CSID)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2~3년간 중재절차가 지속될 전망이다.
- 또한 최근에는 에콰도르 정부와 프랑스 석유회사인 Perenco社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에콰도르 정부는 Perenco社의 탈세 혐의에 대해 3.2억 달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생산된 원유를 압수('09. 6월)하자, Perenco社는 원유생산을 즉시 중단하고 프랑스 정부도 대 에콰도르 투자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국가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음.

#### □ 대미 FTA 체결 전망 불투명으로 대외수출경쟁력 상실 전망

- 미국은 에콰도르 전체 수출액의 56%, 수입액의 21%를 차지하는 제1의 교역대상국으로, 에콰도르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음. 그러나 향후 대미 FTA 체결의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미국과의 FTA 체결 및 비준을 추진중인 페루, 콜롬비아 등에 비해 대미 수출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됨.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sup>f</sup>
경 상 수 지	322	1,617	1,650	1,194	-2,316
경 상 수 지 / G D P	0.9	3.9	3.6	2.2	-4.4
상 품 수 지	758	1,768	1,823	1,360	-1,635
수 출	10,467	13,176	14,870	19,146	13,029
수 입	9,709	11,407	13,047	17,786	14,664
외 환 보 유 액	1,668	1,456	2,765	3,685	3,995
총 외 채 잔 액	17,127	16,536	17,462	16,589	13,280
총 외 채 잔 액 / G D P	46.1	39.6	38.1	30.3	25.4
D. S. R.	30.5	25.3	17.5	16.7	17.8

자료 : IFS, EIU

#### □ 2009년 경상수지 적자 반전

- 에콰도르는 2003년까지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원유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흑자로 반전하였음.
- 2008년 수출은 3/4분기까지 원유 수출이 급증한 데 힘입어 사상 최대 규모인 190억 달러에 달하였고 수입은 내수 호조, 건설업 호황 등에 힘입어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전년 대비 36% 증가한 17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에 반해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는 관광산업 위축, 석유수출관련 선박 운송료 증가, 외국투자기업의 배당송금 확대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 기조가 지속되었으나,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여 2008년에도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2%)가 유지되었음.

- 그러나 2009년에는 1/4분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이상 축소되면서 상품수지가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경상수지는 5년 만에 적자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됨.

#### □ 외채상환능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발표

- 2000년대초 채무재조정 성공으로 외채규모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정부채 재매입, 외채원리금 조기 상환 등으로 2008년 말 현재 동국의 총 외채규모는 165억 달러(GDP의 30% 수준)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외환보유액도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급능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에콰도르 정부는 채권 발행 계약시 불법적인 시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유로 2012년 만기 글로벌 본드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였고 금년 3월에는 2030년 만기 글로벌 본드에 대해서도 디폴트를 발표함.

\* 2012년과 2030년 글로벌본드의 발행규모는 각각 5.4억 달러, 28.3억 달러임.

- 아울러 불법적으로 체결된 이국간 및 다국간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 불이행을 선언함에 따라 당분간 투자자들의 이탈은 물론 외자유치에 난관이 예상됨.

### Ⅲ.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1997년 이후 대통령 탄핵, 쿠데타 발생 등 정치 불안 지속

- 1978년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대통령제 및 단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었으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권력기반이 취약한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되었고, 의회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어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 또한, 군부, 노조, 인디언 단체 등의 영향력이 커서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축출되는 등 정치 불안이 지속되어 왔음.

<표 3> 1996~2009년간 에콰도르 대통령 변천 과정

재 임 기 간	대 통 령	비 고 (축출사유 등)
1996. 8. ~ 1997. 2.	Abdalá Bucaram	국민 총파업 발생 후 의회에서 축출
1997. 2. ~ 1998. 8.	Fabián Alarcón	국회의장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
1998. 8. ~ 2000.1.	Jamil Mahuad	군부 및 인디언 단체 쿠데타 기도, 대통령 자진 퇴진
2000. 1. ~ 2003. 1.	Gustavo Noboa	부통령으로서 헌법상 대통령직 승계
2003. 1. ~ 2005. 4.	Lucio Gutiérrez	대국민 시위 직후 의회에서 축출
2005. 4. ~ 2007. 1.	Alfredo Palacio	부통령으로서 헌법상 대통령직 승계
2007. 1. ~ 현재	Rafael Correa	Palacio 대통령 재임시 재무장관 역임

□ 2009년 5월, 꼬레아 대통령 재선 성공

- 2006년 11월 26일 에콰도르 대선에서 빨라시오 前대통령 임기 중 재무장관을 역임한 꼬레아(Correa) 후보가 노보아, 구띠에레스 후보 등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취임 이후 꼬레아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근거로 기존 의회 해산, 제헌의회 구성, 신헌법 제정 등을 관철시키면서, 신헌법에 의거 2009.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음.
  -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은 대통령의 연임 허용 및 권한 강화,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국가에 유희농지 등의 몰수 등 권한 부여, 일부 불법 규정 외채 상환거부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친 정권 변경을 경험했던 에콰도르는 꼬레아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로 정세 안정화에 성공하자 초기 22%였던 국민 지지도가 현재 60~80%까지 상승함.

## □ 콜롬비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과 갈등 지속

-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콜롬비아의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FARC이 꼬레아 대통령에 70만 달러 상당의 대선자금을 지원했다는 증언이 담긴 비디오와 에콰도르 前내무부 장관이 FARC 사단장과 여러 차례 회담을 했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7월 13일, 에콰도르 정부는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1,346개 콜롬비아 수입 품목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함. 안데스공동체의 관세 조치 철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 콜롬비아 수입품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고수하고 있음.
  - \* 대 콜롬비아 수입 비중 추이 : 14.1%('04) → 12.3%('06) → 8.6%('08)
  - \* 대 콜롬비아 수출 비중 추이 : 4.3%('04) → 5.6%('06) → 4.0%('08)
- 한편, 브라질과는 브라질 엔지니어링회사 Odebrecht 추방, BNDES 채무에 대해 불이행 선언 및 대사 소환 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 ATPDEA 연장 합의, 그러나 미국과 관계는 지지부진

- 한편 대미무역특혜조치인 안데안 무역촉진 및 마약근절특별법(ATPDEA)이 2006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FTA 체결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나, 2008년 10월 1년간 연장이 확정되었음.

## □ 베네수엘라와 관계 강화

- 꼬레아 대통령은 에너지 국유화, 대미 FTA 반대, 사회복지부문 지출증대를 통한 빈민구제를 외채상환보다 우선시 하는 등 급진 좌파 및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에콰도르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대신 우호적인 조건으로 정제된 석유를 공급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꼬레아 대통령 취임이후 국내 사회 불안 요인 경감

- 에콰도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안 지역과 고원 지역간의 갈등, 인종과 이념에 따른 갈등 등 전통적으로 사회적 분열이 심한 국가임.<sup>2)</sup>
- 2007년 꼬레아 대통령의 취임이후 강한 추진력과 정치적 카리스마, 원자재 수출 호황에 의한 풍부한 재정을 기반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의 국민지원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규모 소요 사태 등 사회 불안 요인은 과거에 비해 개선됨.
- 그러나, 국제유가시세 하락 및 세계경기 침체 등에 의한 영향으로 신헌법 제정시의 여러 공약을 추진할 재정적 능력이 제한되면 노동자 및 원주민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 불안 요인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 국제신인도는 중남미 최하 수준

-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2008년 12월 디폴트 선언 이후 에콰도르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이며,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표 4>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순위

기관명	종전 평가 등급	최근 평가 등급
한국수출입은행	D2('07.1)	E('08.12)
OECD	7등급('08. 6)	7등급('09. 7)
Moody's	Caa1('08.11)	Ca('08.12)
S&P	SD('08.12)	CCC+('09.6)
Fitch	CCC('07.1)	RD('08.12)

2) 2005년 8월에는 유전지대인 지역의 주민들이 외국계 석유회사들에 시위를 벌이며 석유채굴시설 및 파이프라인을 파괴하는 등,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인한 소요 사태가 종종 발생하였음.

##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 인수중단 또는 단기에 한하여 선별적 지원

- US EXIM :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중기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제한적 중기 인수
- 독일 Hermes : 제약조건이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 □ 대외채무 리스케줄링 반복적으로 시행

-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가 급증하여 1982년에는 외채위기를 겪었으며, 1980년대에도 국제금리 상승과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외채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왔음.
- 동국은 수차례에 걸쳐 IMF의 구조조정차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IMF의 지원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고 외채상환 중단, 파리클럽 및 상업차관단과의 채무 리스케줄링을 반복하여 왔음.

<표 5> 에콰도르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현황

날짜	기산일 (Cut off date)	대상채무 (백만달러)	대상기간	조건
'03. 6. 13	1983. 1. 1	81	'03. 3. ~'04. 3.	· ODA 채권 : 20년 (거치10년) · 기타 : 18년 (거치3년)
'00. 9. 15		880	'00. 5. ~'01. 4.	· ODA 채권 : 20년 (거치10년) · 기타 : 18년 (거치3년)
'94. 6. 27		292	'94. 7. ~'94. 12	· ODA 채권 : 19년 9개월 (거치10년3개월) · 기타 : 14년 9개월(거치8년3개월)
'92. 1. 20		339	'92. 1. ~'92. 12	· ODA 채권 : 19년 9개월(거치10년3개월) · 기타 : 14년 9개월(거치8년 3개월)
'89. 10. 24		393	'89. 11. ~'90. 12	· 상환기간 : 9년 5개월 (거치 4년11개월)
'88. 1. 20		277	'88. 1. ~'89. 2	· 상환기간 : 9년 5개월 (거치 4년11개월)
'85. 4. 24		330	'84. 6. ~'87. 12	· 상환기간 : 7년 6개월(거치 3년)
'83. 7. 28		169	'83. 6. ~'84. 5	· 상환기간 : 7년 6개월(거치 3년)

## □ 2008년 12월, 에콰도르 정부 디폴트 선언

- 지난해말 에콰도르 정부는 외환보유액, 재정상황 등 양호한 거시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글로벌본드 이자(30백만달러)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발표하였음.
- 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07년 11월 조직된 외채감사위원회\*의 채무 이행 중단 및 지연 권고이나, 실질적인 이유는 국제유가급락으로 인한 원유판매수입 감소, 이에 따른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분석됨.
  - 외채감사위원회는 76년부터 06년까지의 정부채, 이국간 및 다자간 채무, 파리클럽 채무 등 대외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계약건이 이중지급, 불공정 조항, 국제기구와 과거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
- 이후 에콰도르 정부는 금년 3월 2030년 글로벌본드에 대해서도 이자지급(130백만 달러)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신인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현재 2015년 글로벌본드는 정상상환중이며, 디폴트 선언한 2012년과 2030년 채권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의 70% 할인가를 적용하여 매입할 것을 채권단과 협의중임.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 지난해 대에콰도르 수출 4.3억 달러 기록

- 2008년 우리나라의 대 에콰도르 수출은 6.2억 달러, 수입은 25백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약 6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수출은 자동차, 전자, 기계제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철, 커피 등 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러나 에콰도르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금년에는 수출과 수입액이 전년 대비 큰 폭(50% 이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표 6>

양국간 교역현황

단위 : 천미불

구분	2007	2008	2009년(7월)	주요품목
수출	428,595	626,426	189,311	수송기계, 석유, 철강
수입	23,277	25,957	3,129	농수산물, 비철금속제품

- 2009년 3월 기준 대 에콰도르 투자잔액은 17건 14,386천 달러임.

V. 종합 의견

- 에콰도르는 채무재조정 성공과 달러공용화제도 도입 등을 통해 외채위기를 극복한 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산업의 호조로 거시경제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1997년 이후 7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등 고질적인 정치 불안과 달러공용화제도로 인해 대외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8월 재집권에 성공한 꼬레아 대통령은 높은 지지기반을 토대로 기존 의회 해산 후 제헌의회 구성, 여당의 의석 과반수 획득 성공, 대통령 연임 및 권한 강화 등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미국과 콜롬비아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 국제적인 평가는 양호하지 못한 상황임.
- 과거 2000년 채무재조정 성공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서 국제신인도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꼬레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고 급기야 2008년 12월과 2009년 3월에 두차례에 걸쳐 글로벌 본드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발표하면서 국제신인도는 크게 악화되고 있음.

문의 : 책임조사역 최성규(☎3779-6662)

E-mail : ppio93@koreaexim.go.kr